

## 朴學在

1917年 8月 6日生

本籍：서울 東大門區 祭基洞

住所：서울 東大門區 竜頭 2洞 759-13

### 學歷 및 經歷

- 日本 大阪工業大學建築工學科卒.
- 漢陽大學校 工科學大學建築工學科卒.
- 現 漢陽大學校 工科學大學教授.
- 大韓建築學會理事 研究部長歷任.
- 서울특별시 文化委員會 建築分科委員.
- 韓國建築家協會 創立發起委員.
- 文敎部主管 科學技術用語制定委員.
- 國展招待作家.
- 公務員專職任用考試委員.
- 政府廳舍懸賞設計審査委員.
- 박티카노 教皇廳招待 諡福式參席.
- 西洋建築史研究次 이탈리아 古都探訪.
- 美國 Society of Architectural Historians·SAH의 正會員.
- 韓國建築家協會名譽理事.
- 大韓建築學會建築史分科委員.
- 韓國인테리어 디자이너協會 常任顧問.
- 建築哲學으로서의 意匠論. 한양대학교 出版部. 1979年.
- 西洋建築史精論. 耕學社. 1972年.
- 增補版 西洋建築史精論. 尚朝社. 1981年 1月發行 예정.

對談：★朴學在 (漢陽大學校教授)

◎尹鳳源 (本協會編纂委員)

한 겨울의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漢陽大學校를 찾았다. 教授님 研究室을 찾아 돌아다니면서 텅빈 겨울 캠퍼스에 공부하러 나온 學生들도 더러 눈에 띄어 그들의 도움을 받아 어렵지 않게 研究室의 門을 두드리게 되었다.

방안에 들어서니 6名 남짓한 大學院生들이 讀書과 設計에 熱中하고 있는데, 구수한 韓國의인 맛을 지니신분 같았다.

때문에 스승과 弟子로서 자연스럽게 教授님의 教育信念 後輩養成과 建築士의 社會的 地位向上, 建築行政, 建築士協會發展을 爲한 教授님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先生님께서 보신 순수한 建築士業務는 어떠한 것이지요?

★現行建築士의 業務는 許可, 設計, 監理, 竣工檢查의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現在로서는 별다른 큰일은 없으나 나는 여기에 拒否權을 添加하고 싶습니다. 즉 自己가 設計한대로 하지 않았을 境遇에는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말고 竣工檢查를 拒否



할 수 있는 拒否權을 添加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建築士의 힘이 너무 不足한것 같습니다. 뜻있는 建築人끼리 모임을 가져 建築人의 地位向上을 建築人 스스로해서 紐帶關係를 맺어야 되겠는데 建築士의 地位向上을 爲하여 어떻게 努力해야 하는지요?

★建築士로서의 自負心과 公的으로는 人格과 敎養이 높아야 되겠지요, 앞에서 말한 拒否權을 갖는다는 것도 濫用해서는 안되구요.

건축사의 자격을 얻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일 단 연고나면 호지부지해 버립니다.

예들들어 辯護士協會와 比較해서 그들과는 行動이나 言語에 차이가 있습니다. 建築士들은 때때로 協會는 이에 代替할 수 있는 方案을 生覺해 봐야합니다. 내가 美術展覽會에 가보면 建築士는 안오는데 그 이유를 잘모르겠습니다.

建設費의 5%가 姉妹藝術의 병설비로 쓰도록 劃定되어 있음에도 이에 有關되어질 일에 아주 無關心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個人展과 團體展을 막론하고 參觀하는 時間이 야 두서너 時間이면 될것인데 時間 없어 못한다는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建築士로 行勢하는 人士인 처지가 아십니까?

◎拒否權中에서 建築士와 顧客과의 關係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상상해서 建築事務所이 둘이나 셋이 있을 境遇 서로 顧客에게 歡心을 사기위한 建築行爲가 비록 선의였다 치더라도 도리어 지탄의 對象이 되었던가. 이른바 人情과 職責의 갈등에서 不道德의 建築士로 轉落된 事例도 많으니까요.

順應해서는 안될때에 否定해 버리고 默過해서는 안 될때에 是正해 버리며 承認해서는 안될때에 拒否해 버리는 良心과 勇氣가 必要합니다.

不淨하게 축재한 建築士가 이민가서라도 再版의 手腕을 펴려다가 급기야는 沒落했다는 悲話마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겠지요.

★그런 사람은 專門知識에는 能通하지만 그의 社會 一般에 對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아무데도 기여할 데가 없습니다. 建築士로서 許可手續하는 데는 능하지만 너무 自己利益만을 취하는 姿勢는 슬픈 일입니다.

따라서 建築人은 建築家로서의 自負心과 權威意識과 嚴格하고 公正해야 하며 教養이 必要합니다.

◎우리의 「建築士」를 영역하면 그대로「Architects」인데 이 어휘가 “곧” 人格의 人士일것을 뜻하니까, 公證人으로써도 높은 教養이 要望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營利追究만이 至高의 生活方便이라고 生覺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해도 矜持대로 꾸준히 살아야겠지요.

★그렇습니다. 異性和 感性을 가져야 합니다.

◎教授님께서는 建築人이 政治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次元이 다름니다만 建築을 하자면 政治的으로 어떤 파워가 있지 않으면 안되겠죠.

◎저하고 意思가 一致합니다.

建築人이 해야할 일을 非專門家가 할 때 建築人은 어디서 補償을 받아야 합니다.

★非專門家 때문에 建築士의 意圖의 計劃이 잠식되지 않도록 社會的 地位가 向上되게 해야 합니다. 본시 建築家(士)가 지닐 建築의 理想的 表現은 政治家가 바라는바의 政治的 具現을 超越하거나 凌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狀態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表現은 破綻을 일으키고 맙니다. 따라서 이러한 事例은 우리 周邊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더 많아 질것입니다.

國立中央博物館, 國會議事堂, 觀光團地建設 都市計劃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 實例은 아주 많습니다. 建築哲學의 缺如때문이지요.

◎다음은 現在の 建築士像을 社會에 받아들이는 狀況에서 여쭙보고 싶은데요.

★19世紀부터 시작되어 왔든 모든 西歐의 建築文化 運動과 아무런 關係도 없이 지금에 이른것이 우리 韓國의 處地입니다. 다만 短編의으로 紹介되거나 그 作風을 通해서 間接的으로 알려져 있을 따름이지요.

이런 까닭에 建築行爲가 無定見의으로 난잡하게 恣行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20餘年前에 創設된 U.I.A 의 이사국이 되어있으나 받아 드릴만한 建築哲學도 없는 狀態입니다.

그 無定見 인체의 난잡한 우리 建設界임에도 合理主義의 思想을 바탕으로 肥大해진 美利加의 實用主義의 手法에 만 感染되어 있는 것도 特色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分明히 狹窄한 메카니즘의 表現이어서 非個性의인 作風으로 追從되어 가는 處地에 놓여 있습니다. 이 處地에서 脫出하려면 眞 眼目으로 韓国土着의 新風土主義에 立脚한 制作態度로 마음을 돌리는 일이라 여깁니다.

그 Mannerism에 抵抗하려는 Negativism의 대두를 促進

함도 한 方法일 것입니다.

◎無關心인체 傍觀할수도 없는 일이어서 썩 우려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建築歷史나 建築哲學에 關한 知識과 概念 마저 아주 貧弱한 狀態에서 期待하기 어려운데 고작 外國作風의 模倣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니 남의 일로 여겨버릴 일도 아닙니다. 그저 Mannerism의 作風에서 맹똥고만 있는것은 民族文化의 알낱이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의 建築教育의 方法과 建築團體의 관여가 아주 重要視 되겠습니까.

于先 當面問題로 國內에서 유일한 우리 建築士誌에 對하여 勸告하실 말씀은?

★그달 그달 하게 되면 고칠 時間的 여유가 없으므로 編輯은 3個月 미리 앞당겨서 하면 時間的 여유가 있으므로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좋은 일이면 反對를 무릎 쓰고라도 果敢하게 勇斷을 내려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建築士協會도 좋고 會員도 좋을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諮問機構를 編成하는 것도 좋다는 生覺이 들어 이번엔 元老 建築人 12분을 建築士誌에 모셔 建築諮問을 받고자 이런 機會를 마련하여 進行하고 있습니다.

★좋은 企劃과 編輯으로 建築士誌로서의 權威를 가져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教授님께서 建築士誌에 바라는 뜻은 어떤것인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貴誌의 飛躍의 發展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처럼 勸誘합니다.

1. 더 明朗하고 高尚한 印象의 新裝幀으로 바꾸는것이 어떠 하겠습니까? 專門家에게 委囑하여 얻는것과 會員에게 懸賞應募시켜 얻는것과 2가지 方法이 있겠지요.

一方, 한글專用的 缺陷과 矛盾이 斯界에서 이미 指摘되어……아직도 한글만을 쓰도록 굳이 내세우는 선비들이 있을 지라도……을 뿐 아니라 漢字教育이 부활되어있는 実情이니 꼭 漢字混用의 編輯策을 쓰기바랍니다.

2. 執筆陣을 建築人에게만 局限시켜온 종래의 方針에서 떠나……(1)文藝界 (2)法曹界 (3)經濟界 (4)生産界 (5)外人界 (6)學生界 (7)女性界……등의 人士와 學生 또는 主婦들에게도 投稿해 주도록 門戶를 開放할 생각은 없는데요.

例컨데 小規模의 新築住宅에서 사는 主婦의 生活譚, 韓屋에서 사는 外國人의 經驗談, 工場을 運營하는 生産人의 體驗記……등은 素朴한 文學的 價值가 될수도 있고 住宅設計·傳統文化·工場計劃이던가 또는 크게 보아서 政策樹立의 資料도 될것이며 讀者에게는 興味거리도 될 것 입니다.

이러하듯이 그 어떠한 文化論과 生活譚이라도 建築論아니면 建築論이 더붙어지기 마련이니까요.

3. 掲載할 建築作品의 數를 늘리고 寫眞은 專門的인 Camera Man으로 하여금 더좋은 角度와 더 좋은 明度로

攝影하여 실리도록 배려하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建築作品은 그 作家로 하여금 그 計劃의 主知性……에 관한 心象論도 곁들여 投稿받아 誌質을 높이는 方法이 될것입니다. 여기에, 그 建築作品에 대한 美学的 評論마저 곁들여 실린다면 錦上添花之格이 될것이니 斷行해 보기 바랍니다.

貴誌(貴會)에서 新規로 採用할 수도 있을 記者로 하여금……未開發地區·極貧者地帶·不良住宅街이던가 시설 미비의 養老院·孤兒院·鋳山村…… 등의 探訪記를 執筆케하여 실린다면 貴誌에 대한 認識도와 信賴感이 훨씬 더해질 것입니다.

4. 論文內容과 校正加筆에 대하여 유달리 마음을 쏟아 再檢討해 보게 하는것도 重要합니다.

예컨대 貴誌·80年12月號의 18面に 실린 金興坤 教授의 論文「韓国建築意匠에 對한 苦悶과 葛藤」은 稀貴한 拳論인데 또한 緊迫感마저 이는 內容이며 이응고는 首肯과 否定의 激情이 일게될상싶은 論擘여서, 異彩로습니다. 그런데, 그 序頭대목의 論調를 叙情的으로 叙述하도록 投稿者에게 善意的 勸告를 恣行하여 되받아들인 論文이었다면 더 贊否의 激情이 일게될 投稿라고 評價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內容의 校正과 加筆은 물론, 既存의 編輯委員中에서 該當分野에 造詣가 깊은분이 그 投稿者에게 當付케 함이 옳겠지요.

다른 實例를 들자면 39면에 실린 金濟東 教授의 論文「고딕建築의 構造에 關하여」에 指摘되겠습니다. 이 論文에 있어서, 그 고딕建築의 構造의 特性에 關한 主旨의 原因이될 歴史的인 宗教·對象·狀況……이 漏落되어 論文의 體制가 아주 虛弱하고 內容도 虛構스럽습니다. 따라서 構造論이면 그 平面計劃論이 따르게 되고 이 平面計劃論인즉 이 平面을 構成하는 部分의 名稱이 따르게 마련인데 其中的 Nave(身廊)을 Bema(內陣)라고 잘못해석하면서 그 構造法을 披瀝했으니 首肯되어질 客觀性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뿐만아니라, 그 構造法과 密着되어진……Clustered Pier(다발柱), Ogivers Ribs(맞골扇形보) Spire(尖塔)……등을 輕視한 解說이었으니 이러한 過誤가 反復되던 誌質을 低落시킵니다. 그래서 執筆者와 編輯者와의 一糸不乱한 紐帶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에 他誌쪽에서 拒絶당한 論文임에도 미처모르고 貴誌가 掲載해 버렸을 때에, 일으켜질 不便한 關係를 想像해보십시오. 아울러 建築評論欄과 時評座談會의 常設을 勸告합니다.

◎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退職도 얼마 안남았을텐데 老後對策으로 退任後의 構想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 老後에 退職을 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對해서는 建築으로 할까, 趣味로 個人展을 열어볼까 하는데 단지 지금 狀態로는 退職金, 保險金이 어뎡고 하는 그런 程度입니다.

◎ 建築士協會 發展을 爲하여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具會長에게 勸告하고 싶은 것은 모든 일에는 人和가 있어야 하니 이에 適當한 施設을 마련하면 어떠하겠습니까. 예컨대 協會에다 談話室을 설치하던가 山間이나 海邊에다 週末의 집을 마련하면 會員의 모임과 親睦이 이루어질 터이니까요. 사치스런 施設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來日을 爲한 計劃과 實踐을 爲해서는 이런 정도의 施設을 利用할 必要가 있을 것입니다.

◎ 具會長도 어떤 服案이 있는 듯이 보입니다.

協會에 바라는 말씀이 계시다면?

★ 엇그제에 이르러 Micro-Processor라 불리운 高性能의 生産機器가 發明되었기에, 지금부터서는 社會改革時代로 치닫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Micro-Processor를 우리말로 翻譯하면 「微細工作器」라 불리워지겠지요. 지금까지 큰 몫을 차지해왔던 電子計算器의 Computer가 担當해왔던 代役을 綜合적으로 堪當하는 이 微細工作器는 값이 아주 低廉한데, 工產品의 製造過程을 快速하고 精密하며 또한 量産되게 합니다.

그래서, 開發途上國이 이 微細工作器를 利用하면 그 社會改革이 「5年以内」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더 注目되는 것인 즉 이 微細工作器의 本質의 特色이겠습니다. 종래의 電子計算器가 運算法은 잊게하고 結果의 答만 알게했듯이 人間性을 剝奪했으나 이 微細工作器인즉 두뇌가 작용할 知能, 어느 자극때문에 느껴질 感性 그리고 본래부터 지니온 素質……을 더 要求하면서 社會的協同에 대한 人間關係의 資質이 發揮되도록 要望하듯이 人間性을 尊重한다는 事實입니다. 人間이기에 人間으로써 本然의 姿勢를 되찾아, 正直하게 活動하고 処世할 情報社會의 時代가 되것 같습니다.

이러한 狀況이 어느 先進國에서는 이미 始作되었으니 우리 韓國에서도 멀지않아 採摺될 懸案이겠으므로 그 如實한 效果가 나타남도 멀지 않겠지요.

이러한 趨勢이기에, 모름지기 建築士協會가, 能動的인 建築士의 總本山이라고 自處한다면 그 活動해야할 処事도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韓國의 自主的인…… 生産方法과 經濟施策, 政治風土와 言論暢達, 教育革新과 精神啓導……에 進取의 變遷이 이루어질것도 前提한다면 더 鼓舞되어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變遷될 時代相에 즈음하여 溫故知新으로의 轉換이 있어야할 建築士協會에, 다음의 6 가지를 간추려 期待하며 勸誘해 봅니다.

1. 對內的으로는 建築士協會가……會費의 收納, 登錄·書籍代의 徵收, 主務官署의 指示伝達, 會誌의 刊行, 定期總會의 開催……만이 能事로 여겨온 通念을 벗도록 方向轉換해야할 것입니다.

2. 建築士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實質的講座를 開催해야할 뿐만아니라 資格試驗의 科目調節, 筆答範圍의 增大와 筆答內容의 轉換을……客觀式答案의 作成을 主觀的 answer으로 作成하도록……斷行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原来의 設計業務가 「模倣의 暗記의 再現行為」가 아  
님에도 마치 大学生에게 誤導하고 있는 것을 反復하는 것  
처럼 恣行해 온 이른바 「1日設計」라는 試驗方法을 果敢  
히 方向轉換하도록 考慮해야 할 것입니다.

3. 可及의 이면 會員의 海外視察을 奨勵하여 그 文化的  
識見을 넓혀주는 동시에 海外의 建築士·建築學者·建築  
技術家 등을 招聘하여 講演會나 交歡會를 開催하도록 마  
음써야 할 것입니다.

4. 建築士協會의 諮問機構를 新設하여 協會運營의 効  
率性이 있도록 助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構成員  
을 建築學界의 教授陣에 局限시킴이 없이 文芸界·法曹界·  
經濟界·生産界 등의 人士로 網羅해야 할 것입니다.

5. 建築士協會가 建築許可願에 대한 行代業者의 集會  
일 뿐이라는 通念도 씻어지도록 社會에 影響을 文化的 行  
事를 自主적으로 開催해야 할 것입니다. .

6. 八一五의 解放을 歡喜로 慶祝해 온지도 어언간 36  
年이 되었습니다. 日本人에게 殖民당해왔던 期間과 같은  
年數입니다. 이러한데, 아직도 工事場에서는……人夫·什  
長·技能者·技術者·現場代理……등 이러한 建築術語  
를 日本語로 對話해 오는 터입니다. 아주 어색하고 서투른  
發音인데……他生産系의 從業員들도……이것마저 모르던  
羞恥로 여기는 風土이지요. 愛國思想의 無風地帶인가 봅  
니다. 工事場으로 派遣된 갖졸업의 純朴한 學士出身도  
또한 이 無風地帶에서 自我를 窒息시켜왔습니다, 심지어는  
建築士의 設計事務所에서 쓰는 專門術語도 怪常한 日本  
語이니 建築士協會에서는 傍觀만 하렵니까. ?

새로 選任된 具琬會 會長의 抱負와 苦衷도 더해 지겠  
읍니다.

◎ 先進國과 對比하여 建築士 業務量과 建築士 數에 대한  
比較를 하신다면 ?

★ 建築士들의 權威問題와도 關聯이 되겠는데 이때까지보  
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人員을 적게 뽑고 文門戶放을 안한 탓도 있습니다. 學  
校를 卒業하면 建築士가 되지 않고 建設會社로 많이 進出  
하고 있어 數가 적은 것 같은데요.

★ 建設業체로 간다는 것은 心理적으로 當然하죠.

◎ 官에서 施行하고 있는 建築行政에 對하여 말씀해 주시  
겠습니까?

★ 設計者의 意圖에 關係없이 官의 意思대로 뜯어 고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都市美觀上 技能上으로도 그 役割을 제대로 못  
할 境遇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營利를 爲한 手段  
이지 作品發表가 아니라고 봅니다.

★ 官을 절대적으로 民間은 거기에 服從해야 하는 것으로  
여기는 風潮와 態度는 反省해야 할 일입니다.

◎ 그래서 建築士中에서도 立法部와 같은 機關에서 制定된  
法制를 通하여 그 惡化되어 가는 生活 環境이 防止되어야  
하겠다는 矜持의 人士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

分の 建築界人들은 이렇게 됨을 反對하는 態度여서 有憾  
스럽습니다. 이점에 對한 敎授님의 見解는 어떠하십니까.  
★ 科學分野와 藝術分野의 專門家가 政治界로 나서는 것  
을 禁忌로 여기는 것이 常識化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純粹  
性을 잃는다는 것과 政治家로서는 失敗한다는데에 起  
因하는 것이지요. 이중의 失敗觀은 곧 人品, 經驗, 力法  
에 속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純粹觀이 즉 그 순수성이 그대로 지켜지려면  
建築界의 人士가 政界로 進出함도 必然의 快舉라고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未然에 防止 해야 할 建設狀態와는  
正해야 할 建築法規의 實例는 해야될 수 없이 많아 일일이  
例舉할 수는 없으나 立法部의 法制化가 아니고서는 防止  
되고 是正될 可望이 없는 것 들이라고 여깁니다.

◎ 끝으로 건축사에게 바라는 말씀이 있다면

★ 모처럼 치룬 國家考試로 建築士가 되었음을 무던한 榮  
譽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고 行動하는 業  
績이 建築士 個人的 營利的 得失만을 目的삼아 左右된다  
고 여길 것이 아니라 民族과 國家의 一員으로써 堪當해  
야하고 寄與해야 할 文化的 精神의 責任과 直結되고 있을  
을 더 크게 認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思惟的인 理論  
과 研究도 없이 이루어진 技術이 없을 진데, 自身이 지니  
는 能力과 天職이 貴重한 哲學的 思惟로 이루어진 結晶  
이라 여겨지도록 來日을 바라다 보는 바의 知性人다운 努  
力이 기우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努力의 結晶과 發展에 對한 過程도 없이 그 지  
너왔고 오는 바의 험푼한 模倣이던가 알팍한 經驗의 常  
識만을 풀이하면서 巨創스러운 行勢였고 行勢하는……  
建築行政人·建築技術者·建築審査員 그리고 이른바 權  
威者라 일컫고 利己心에 左右된 建築先輩人들, 언제나 돈  
보일 言行의 背後에서 利權蓄財에 泪沒했 을 뿐 住宅問題  
마저 아예 忘却했던 党派政治人……들이 우리 社會를 汚  
染시켰고, 시키는 過去와 現在를 눈여겨 보았고, 보는 우  
리의 処地입니다.

그 功利의 拙速한 建設企圖과 低質의 罔測한 建築表現  
이 서슴치않고 恣行되고 反復되는 우리의 都市들! 그리  
고 너와나의 農村·漁村·鉦村들! 人間의 感覺情緒를 迫  
害하는 環境이 自意에 따른 過誤로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他意에 따른 破綻으로 이루어졌거나를 莫論하고 이 모두  
가 우리들 「建築士의 思考와 技術」로 저질러진 現實이 아  
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醜惡한 建築의 作態에 대하여 取  
할 수 밖에 없는 論難이 우리 韓國社會에 局限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世界속의 韓國임을 미처 意識하지 못한 채  
함부로 저질러 버리는 우리 「建築士의 業務的 姿勢」일  
것입니다. 筆者가 이 原稿를 쓰고 있는 中에도, 讀者가  
이 全文을 읽고 있는 中에도 「韓國五千年美術史展」을 통  
하여 祖上들이 秀越하게 이룩했던 藝術을 異民族의 外國  
人에게 자랑하고 있는 터인데 그 後裔인 우리 建築士가  
저질러 놓은 精神의 表現은 과연 어떠하며 또한 무엇입니

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堪當해 낼만한 能力이 없  
서가 아니라 바로 精神이 解弛해졌기 때문이었지요. 그러  
기에 그 惡影響의 害毒이 큰 作態가 서슴치 않고 反復될  
것이 憂慮되는 터입니다.

이것은 非但, 筆者에게 局限된 것만은 아닙니다. 그 功  
利의 拙速한 建設企圖과 罔測한 建築表現이 敢行되어 버

린 莫重한 責任의 反省과 轉換을 期待함에는 그 連帶的  
引責이기 보다는 個人的 覺醒으로 차츰 鈍化시켜지게 하  
다가 이윽고는 醇化되어지게 할 바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個人的 覺醒이 뒷받침될 바의 理論과 研究의 對象을 發  
見하고 濾得함으로써 健全한 自信의 行動이 곧 業績化되  
도록 實踐하기를 勸誘하여 마지 않습니다. ■

## 西洋建築史

尹 定 燮·朴 泳 吉 共著 A 5·300面 定價 5,000원

본서는 원시, 고대, 중세, 근세, 근대의 제시대를 통한 건축사의 전체적인 조류 속에 나타나는 통일적인 양식을 파악할 수 있도록 엮었다.

## 建築積算學

金 正 秀·沈 明 燮 編著 B 5·360面 定價 7,000원

기초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적산학으로 대학의 교재 및 실무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 建築設備

朴 榛 琮 著 A 5·470面 定價 7,000원

제 1 편 위생설비, 제 2 편 공기조화설비, 제 3 편 전기설비로 구성되었으며,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재로 엮었다.

## 最新 鐵骨構造學

金 圭 石 著 A 5·336面 定價 5,500원

81년도 일부개정판으로 개정된 KS 및 학회규준에 따른 유일한 표준적 철골구조학으로, 대학·전문대학 교재 및 기술자의 참고서로서 최적이다.

## 黃金分割 Golden Section

俞 吉 濬 譯

피라미트에서 르·꼬르뷔제까지

A 5·254面 定價 5,000원

황금비의 여러 이론을 실례와 그 분석을 통하여 독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건축가·공업디자이너·화가 등 모든 예술가들에게 형태 조화의 기본 원리로서 비례법칙을 보여주고 있다.

圖書 技 文 堂  
出版

서울特別市 鍾路區 鳳巖洞154  
☎ 764-4151·764-1149

◎全國有名書店에서 販賣中!